코로나19 종단 모금, 자비행 확산을…

社 說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

코로나 확산은 공업(共業)
가장 괴로울 이 살펴야
대승적 보살행이 붐제거

자비의 따뜻한 마음내어
불교의 참모습 발현되길
종단차원 성금모금 필요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서로 서로의 따뜻한 마음이 증폭되어 이 세상이 정말로 따뜻하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이루어져 간다. 참으로 마음에 달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사태, 그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뉘 있을까?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 괴로움의 폭풍 속에서 그래도 우리 불자들이 먼저 마음을 추스르고 따뜻한 마음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코로나19의 아픔을 누구 개인이나 특정집단에 돌리지 않고 우리가 함께 지였기에 함께 해결해야 할 공업(共業)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가장 괴로움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한다. 거기에 하루 빨리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마음을 일으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는 순간, 오히려 나 혼자 속에 매몰되어 느끼던 괴로움은 참으로 하찮은 것이 된다는 대승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의미에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다. 대승적 보살행의 마음을 일으키는 주체는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의 대승적 자비행을 증명해야 할 시금석이 바로 코로나 19사태이다.



위례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은 2월 25일 천막결사 회향 당시 모인 보시금으로 마스크 1만개와 손 소독제 1천개를 준비,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코로나 19가 사회적 약자층과 소외계층에게 주는 괴로움은 단순한 근심과 불편함을 넘어 참으로 삶의 기본조건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향하는 불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미 크게 일고 있다.

그 마음들이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불교 단체들에서 기금 마련 등의 보다 큰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고무적인 일이다. 이 흐름을 이어 참으로 자비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큰 움직임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 차원의 큰 행보가 일어나야 한다. 개개인들의 마음을 잇고 엮어 보다 큰 움직임으로, 그리고 그것이 커다란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불국토건설의 길이다. 그러한 길에 가장 중요하고도 큰 역할을 해기 위해 불교 종단이 있는 것이 아닐까? 불자들의 마음이 종단으로 모아지고, 그 모아진 마음을 통해 큰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다시 불자들을 고무하는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종단차원의 기금마련, 성금모금 등의 구체적 실천과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확산시키기를 촉구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등에 코로나19에 아픔을 겪는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등이 밝혀지고, 그 빛에 담긴 자비의 마음이 누리를 밝히기를 기원한다.

동대 일산불교병원 '국민안심병원' 지정

동국대일산불교병원(병원장 이해원)은 "2월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에 선정됐다"고 2월 27일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환자가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모든 진료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전 진료 과정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동국대일산병원은 지역민들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병원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에 신청했으며, 동국대일산병원을 포함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총 91개 기관이 선정됐다.

동국대일산병원은 환자들의 감염관리를 위해 원내 대응 매뉴얼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의 별도 진료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동국대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민안심병원 시스템 가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계율 생활화… '비구니계 포살본' 발간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비구니계 포살본' 편역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포살본이 새로 편역 · 발간됐다.

수원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원장 적연)은 비구니 스님들이 지켜야할 계율을 담은 〈비구니계 포살본〉 편역 · 발간했다.

포살은 출가 스님들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승가 대중 전원이 한 자리에 모여 스님들이 지켜야할 계율 조목을 읽는 것을 말하며, 자자와 함께 승가 전체의 청정성을 유지하는 의례이다.

이번에 발간된 봉녕사의 〈비구니계 포살본〉은 사분율장(四分律藏)의 연기에 부합되게 편역됐다. 한글화를 비롯해 가로쓰기, 율장언어 현대어 해석 등이 중점을 둬 계율이 생활화되고 현 세대에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봉녕사의 〈비구니계 포살본〉은 지난 2018년 발기와 검토를 거쳐 지난해 1월부터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스님들이 연찬을 시작했으며, 12월 1차 편역을 완료했다.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 단주 성우 스님과 해인사 전계사 무관 스님이 2차 증의와 올해 1월 사중 대중이 합송하며 윤독을 거쳐 마무리됐다.

이번 〈비구니계 포살본〉에 대해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장 적연 스님은 "사미니계포살과 식차마나니계포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포살해야 한다"면서 "출가자의 각 신분에 적합한 포살을 각각 시행하므로 각자 위치에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포살을 통해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춰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구족계 수계 대상 비구니 스님과 3급 법계 산림에 참여하는 비구니 스님들께 법공양할 예정"이라며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계 포살본〉을 소지해 계율에 맞게 대처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나침판 역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녕사는 〈비구니계 포살본〉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로 연기해 봉정키로 했다. 신성민 기자

동화사 · 쌍계사 · 범어사 주지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월 26일 임명장 수여


지자 스님


덕운 스님


경선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지자 스님,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덕운(영담) 스님,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에 경선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협력을 부탁드리고, 교구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화사 주지 지자 스님은 진제 법원스님을 은사로 1993년 수계했다. 팔공총림선원, 망월사 천중선원 등에서 안거수행하고, 대운암 주지를 역임했다.

쌍계사 주지 덕운 스님은 고산 혜원 스님을 은사로 1968년 수계했다. 제10~16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총무부장, 석왕사 주지를 역임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법윤 스님을 은사로 1967년 수계했다. 우곡사, 의림사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14명 신규 위촉

초기불교 등 6개 분야서 12명 아사리 스님 재위촉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교육아사리 스님 14명을 신규 위촉했다. 3년 임기를 마친 교육아사리 12명에 대해서도 재위촉했다.

이번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은 초기불교를 비롯한 6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초기불교 분야에는 비구니 경문 스님(스리랑카 캘라니야대 빠알리 불교학과 박사)이, 대승불교 분야에 정화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이, 선불교 분야에 철우(동국대 선학 박사) · 덕림(동국대 선학 박사) · 비구니 원상 스님(동국대 선학 박사)이 위촉됐다.

계율 분야에서는 비구니 도문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이, 한문불전 분야에 반산(은해사 승가대학원 삼장 강사 학위) · 비구니 법우 스님(동국대 불교학 박사수료)이, 응용불교 분야에 선지(중앙승가대 실천불교학 박사) · 탄탄(원광대 문화콘텐츠학 박사) · 하원(동국대 마케팅 박사) · 현주(동국대 미술사 박사) · 비구니 효신(경남대 국어학 박사) · 비구니 우관(인도 델리대 불교학 박사) 스님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재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은 자목 · 법상 · 현견 · 정운 · 자현 · 원법 · 선암 · 정각 · 금강 · 재마 · 혜장 · 형운 스님이다. 신성민 기자

신흥사 총회 3월 23일… 지혜 스님 거론

주지 우송 스님의 사직으로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신흥사가 3월 23일 오후 1시 설법전에서 차기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신흥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주지후보 선출과 관련된 일정을 이 같이 확정했다. 후보 접수는 3월 11~13일이다. 현재 신흥사 안팎에서는 차기 주지후보로 양양 명주사 주지 지혜 스님이 거론되고 있다.

지혜 스님은 신흥사 조실이었던 설악무산 스님의 사제다. 평소 무산 스님선문답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이에 지혜 스님은 무산 스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 선시화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한편 우송 스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호섭 기자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2020학년도 불교의식(범음, 범패)교육원 신입생 모집

본원은 불교 전통의식인 영산재(범음, 범패)를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로 지정받았으며 영산재를 계승 및 발전 유지하고 후진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불교 문화재이자 민족의 빛난 문화유산인 불교전통의식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불교의 각종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배우실 기회를 놓치신 스님들께서는 종단을 초월하여 승려 양성에 목적을 두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아오니 스님들께서는 수희동참으로 만학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광주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23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 부여 ※

수료 과정 및 강주

모집반		교육내용	강 주	요 일	시 간	모집조건	교육기간
1학년	1학기	기본 이론 및 예불, 각종 사물 다루는 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목	오후2시 ~오후6시	모든종단 승려	1년과정
	2학기	각단불공 및 시식					
2학년	1학기	범음범패, 바라작법, 나비작법등 고급과정	혜령스님 호산스님 월인스님	금	오후2시 ~오후6시	초급반 이수자	1년과정
	2학기	실전대비 의식진행 전문과정					

◈응시자격
- 입 학 : 모든 종단의 승려
-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의 소정양식)……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장
- 전형일정 : 2020년 2월 ~ 3월말까지(접수가능)
- 개 강 일 : 2020년 3월 19일(목요일)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1로 53(금호동)
- 입학문의 : 법륜사 종무소 062-655-7444, 010-6650-7444
  보존회 사무처장(법진스님) 010-9606-3981
  연구원 교학처장(명휴스님) 010-7941-0017

2020년 2월

(사)광주전통불교 영산재 보존회